咸安趙氏
宗會報

發行人：趙 鏞 韶
編輯人：趙 英 濟

發行處
咸安趙氏宗事運營會
慶南 咸安郡 郡北面 中岩里 126
TEL：(0552)83-6787
FAX：(0552)83-6787

印刷處
도서출판국제·중앙인쇄문화사
TEL：246-5667·2825
FAX：246-2825

宗會報는 家統資料

宗會報는 咸安趙氏 종중(宗中) 소식을 전하고 후손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선조의 뿌리」등을 게재(揭載)하는 교과서(敎科書)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게재중인 「선조의 얼」과 앞으로 연재할 언행록(言行錄)을 사실(史實)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 할 것 입니다.

宗員들께서는 이 宗會報를 읽으신 후 버리지 마시고 모아 철(綴)해 두셨다가 다음 세대에 전하여 가통(家統)을 잇는데 자료(資料)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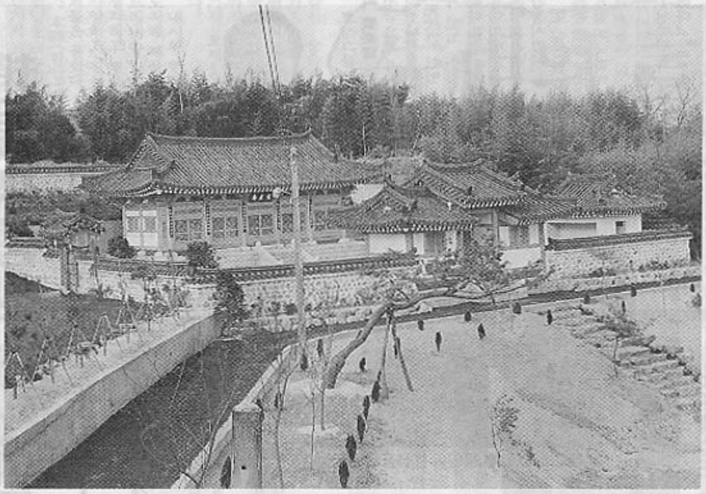
創刊号 부터 구하고자 하는 일가들은 아래 주소대로 연락 주시면 곧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중구 영주동 151－6 趙英濟(051) 463－1572〉

鷹巖齋 重建 落成式 엄수

全國서 2천여 宗員참석 성황

祭官에 鏞韶회장、咸趙崇祖心 과시



▶竣工을 본 鷹巖齋 全景

漁溪선조 후손들의 숙원이던 鷹巖齋중건 낙성식이 지난해 12월 4일(음10월12일) 정오 咸安郡法守面江洲里 응암재에서 1백여명의 지방유림(儒林)과 경향각지에서 오신 2천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운집한 일가들의 수는 江洲里가 생긴 이래 최대의 종중(宗中)행사였다。

이날 낙성식은 오전10시 漁溪선조 내외분의 묘향(墓享)에 이어 진행되었다。 식은 鷹巖齋 중건낙성 고유제(告由祭)가 응암재 대청에서 종사운영회 鏞韶 회장이 제관으로, 光濟 고문의 고유문 낭독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낙성식 행사는 많은 인파로 응암재 뜰에서 진행못하고 건물옆 주차장 광장으로 옮겨 진행되었다。

국민의례와 선조에 대한 묵념, 감사패 전달이 있었고 응암재 중건 경과보고가 있었다。 鏞韶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백16년전 창건된 응암재는 여러차례 중수(重修)를 거듭하다가 최근에 와서 퇴락(頹落)이 심해 후손된 도리(道理)로서 민망하여 종회(宗會)에서 중건을 결의, 착공 1년만에 낙성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응암재 중건사업은 우리 咸趙가 추구해야할 孝心의 회복사업이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재실을 준공함으로써 사회순화 운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다해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응암재 중건사업에 절대적 공로가 컸던 전 國會議員 一濟종원은 축사를 통해 「옛날 나라가 어지러우면 忠臣이 났다。 평생 군왕을 위해 백의 정선으로 지조를 지켜오신 선조님의 재실 준공식을 맞아 한없이 기쁘다」고 말하고 「수고하신 운영회 임원에게 감사하고 咸安에 거주하는 종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화수회총연합회 弼濟 회장은 『우리 咸安趙門은 역사적으로 충효(忠孝)의 가문으로서 한국씨족사회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의숭절(當義崇節)하신 현조님을 많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응암재 준공은 위기에 달한 人倫道德의 회복운동과 무너진 사회 기강을 재건하는데 산 교육장으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咸趙 外孫이기도 한 尹漢道씨는 축사에서 『함안 조씨 문중 발전과 응암재 낙성을 축하한다」고 전제하고 『오늘 낙성을 본 응암재는 咸趙만의 재실이 아니고 또 生六臣 漁溪선생은 咸趙만의 선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생이며 재실」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문 앞에서 테이프 절단으로 식은 끝났다。

이날 현장에서 1천3백여만원의 헌성금이 답지 되었다。

이날 감사패와 공로패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감사패＝金圭鎔(木手) 朴基明(木手) 李澈子(서울) ▲공로패＝趙英濟(鷹巖齋중건총괄책임자) 趙澈濟(宗事運營會事務局長)

▲落成式에 參席한 人波

大笑軒先生

墓域정화사업착공

경남 山清郡 丹城面 召南里 소재 大笑軒선생 묘역 정화사업이 직계종파(宗派) 후손들에 의해 착공되었다。

지난 94년 10월 착공했다가 漁溪선조의 응암재 중건공사와 겹쳐 완급(緩急)을 가려 공사를 추진해왔다가 이제 응암재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공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추진 해오던 宗家에 의하면 大笑軒선생의 묘소와 오산재(梧山齋), 그리고 화장실 상수도 등이 재래식 그대로라고 지적, 선조에 대한 면목이 없어 늦게나마 착공하게 된 것이라 했다。

그동안 상수도, 묘소앞 축대 개축, 묘역 잡목 벌목, 묘소 입구 계단, 종토 경작정리, 묘역 조경 등은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大笑軒선생 묘소 봉분 개토, 오산재 보수, 안내판 설치(4곳), 묘소앞 연못조성, 잔디심기, 진입로 포장 등이 진행될 것이라 한다。 종가에서는 후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大統領표창 수상

趙魯濟종원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253－37 趙魯濟 종원이 지난해 11월 23일 30여년간 농촌청소년 지도육성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魯濟 종원은 부산화수회 이사와 한국4－H연맹 경상남도지부장, 동의대학교 부설 의회제도 연구소 운영이사, LG트레이딩, 크로바무역대표로 역임하고 있다。

玉川公 齋舍 永慕齋 준공식

京畿道 파주군 월롱면 능산리서

貞節公 漁溪선조의 현손(玄孫)이신 玉川公 諱, 堦字 선조의 재실 永慕齋 낙성식이 지난해 11월 26일(음10월 4일)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능산리에서 후손과 많은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玉川公은 1530년 咸安 院北洞에서 諱、庭 字 堅字 참봉공의 장남으로 태어나 17세때 청운의 꿈을 안고 한양으로 올라가 白休庵 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학문을 수학하다 큰사위가 되서 參判公派의 많은 後孫들이 波州에서 세거(世居)하게 되었다。

玉川公은 1570년(宣祖 3年) 진사시 급제하여 사포서별좌(司圃署別坐) 평시서직장(平市署直長) 종부사 주부(宗簿寺 主簿)에 오르셨다가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종손 在宇 종원과 함조연합회장등 테이프를 끊고 있다。)

各宗會 定期總會

釜山清風會

咸安趙氏 부산清風會 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하오6시 釜山沙下區 槐亭洞 향미식당에서 거행。 이날 임원선출에서 회장에 趙信濟 종원이、총무에는 趙錆濟 종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無盡會

咸安趙氏 부산無盡會 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 15일 하오6시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향미식당에서 개최、이날 회장에 趙判濟 종원과 총무 趙安濟 종원이 유임되었다。

宗告

◉鷹巖齋落成式 비디오테이프 신청요망

지난해 12월 4일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漁溪선조 묘향(墓享)과 鷹巖齋 중건 낙성식의 많은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곧 나옵니다。 기념으로 갖고자 하시는 종원들께서 신청하시면 자택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2백권 한정판으로 제작되었기에 신청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가격 1만3천원 ◉소요시간 1시간 ◉신청처 군북우체국(610147－0027668) 조철제

◉族譜희망 宗員은 신청바람

宗事運營會는 선조의 뿌리를 알고 이를 후대(後代)에 정확하게 전수하기 위해 옛날 족보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성의있는 宗員들에 의해 甲辰譜(1664년)와 庚子譜(1780년)을 입수하였습니다。 갑진보는 1권으로、경자보는 天·地·人 3권 한질로 되어 있어 이를 희망하시는 宗員들에게 복사하여 실비로 배부코자 합니다。 필요하신 종원께서는 咸安종사운영회(0552－83－6787)나 부산 463－1572(조영제)로 연락하시면 곧 복사하여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鷹巖齋誠金 未納宗員의 早速 납입바람

96년 4월 19일(음력 3월2일)에 종사운영회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날 응암재중건 특별회계 결산이 있을 예정입니다。

헌성록에 기록하시고 아직 入金하시지 못한 宗員들께서는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나는 咸趙의 崇祖思想

鷹巖齋 重建에 宗員들의 熱誠的 獻金

趙錫來종원 5천만원

在日本 趙鏞泰종원 1천만원

西隆그룹 益濟종원 4남매도

효성그룹 趙錫來 회장이 鷹巖齋 중건 공사 헌성금으로 5천만원을 쾌척했다. 錫來 종원은 『先代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고 未來가 있는 것이다』면서 거액을 종사운영회에 송금해와 종사운영회 임원들을 또 한번 감동시켰다.

또 일본 兵庫縣에 거주하는 鏞泰 종원이 지난달 6일 귀국하여 신축 응암재 건물을 둘러보고 감격한나머지 鏞韶 회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 격려했다.

▲일본에 살고 있는 鏞泰 종원이 헌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西隆그룹 益濟 회장도 일찍 1천만원을 쾌척한데 이어 또 슬하 峻來 종원등 4남매가 어려서부터 저축해 오던 저축동장을 털어 2백50만원씩 합계 1천만원을 송금해왔다.

釜山 鏞晋 종원도 아들 3형제와 같이 6백만원을 헌성했는데 『아무래도 적은 것 같다』면서 2백만원을 증액, 모두 8백만원을 헌성했다.

지난해 12월 4일 낙성식에 참석했던 節度公派 承義公 종손 英在 종원이 응암재 마당에 놓인 정원석의 가격을 묻고 자신이 맡겠다고 7백만원을 송금해왔다.

또 郡北面 柳峴里 大濟 종원의 생질 육군소장 李相道씨와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 李相煥 형제가 낙성식에 참석하여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의 헌성금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외손(外孫)도 응암재중건에 참여했다.

이밖에도 경북 고령 參判公 參院宗中에서도 2백만원과 함께 객지에 흩어져 살고있는 20여명의 宗員 주소록을 보내오면서 宗會報 우송을 부탁했고 또 釜山에 살고있는 鏞洙 종원은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 3형제 나란히 30만원씩 헌성하면서 『훗날 아들들이 와비비(臥碑)를 보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위선(爲先)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했다.

한편 종사운영회는 와비(臥碑)를 96년도 漁溪선조 묘향(墓享)일에 공개할 계획인데 이는 헌성에 참여하지 못한 종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鷹巖齋건립 獻誠金 감사합니다

〈行列順〉

▲趙錫來(大笑軒公派·서울) 曉星그룹 會長 5천만원

▲趙英在(節度公派 承義公宗孫·서울) 中國渤海大學 經濟研究所 財團理事 7백만원

▲趙峻來(大笑軒公派·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2백50만원

▲趙炯來(大笑軒公派·서울) 日本早稻田大學 大學院 博士過程 2백50만원

▲趙原皓(大笑軒公派·서울) 신원제지(주) 사장

▲趙那玹(大笑軒公派·서울) CIDI회사 사원 2백50만원

▲趙鏞晋(大笑軒公派·釜山) (株)西晋 會長(2次) 2백만원

▲參判公派 大邱參院宗中 2백만원

▲大笑軒公派 竹林宗中 1백50만원

▲趙韓奎(參判公派·釜山) 前公務員 1백만원

▲趙彧濟(稻巖公派·咸安) 前道議員 1백만원

▲東溪公派 노이里宗中 1백만원

▲李相道(大笑軒公派 外孫·서울) 국방부 법무관리관 陸軍少將 1백만원

▲李相煥(大笑軒公派 外孫·大邱) 慶北醫大 教授 1백만원

判決公묘비제막식

判決公 諱纘 선조의 묘비 제막 및 告由祭가 지난해 12월 3일 咸安郡 郡北面 院北洞 묘역에서 직계후손과 300여명의 一家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公은 漁溪선조 큰아드님 珍山公의 네째 아드님으로서 문과시(文科試)에 등과(登科)하여 丹城현감, 密陽부사, 慶州부윤을 거쳐 掌隷院 판결사를 지낸 判決公 파조(派祖)이시다.

▲제관들로 메운 漁溪선조 산소

鷹巖齋重建 落成式 낙수

지난해 12월 4일 漁溪선조의 묘향일(墓享日)과 응암재중건 낙성식이 같은 날 거행되어 咸安郡 法守面 江洲里마을이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人波)로 교통정리를 위해 경찰관이 동원되는 등 혼잡을 이루었다.

이날 제관을 수송한 버스가 30여대, 승용차 1백여대가 몰려와 집행부가 사전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두어 그나마 질서있게 수용할 수 있었다.

멀리는 서울, 경기도 坡州, 전남 光州, 谷城, 青松, 安東, 大邱, 高靈, 釜山, 金海, 馬山, 晉州 등에서 월요일인데도 많은 후손들이 운집하였다. 釜山, 馬山 등지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종원들도 휴가를 받아 참석하여 선조를 위한 정성이 갸륵하기도 했다.

상오 10시 漁溪선조 내외분의 묘앞에 在宇 종손과 사전 선정된 헌관들이

2천여宗員들 삼삼오오 모여 웅장함에 감탄

질서정연한 駐車行列、墓域엔 설자리없어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先祖의 뿌리이어받아

도열하고 그 밖의 제관(祭官)들이 어림잡아 1천여명이 넘는듯, 묘역이 상당히 넓은 편이나 설 자리가 없어 漁溪선조 묘소밑 宣傳官公 할아버지 묘역까지 발디딜 틈없는 대성황이었다.

종사운영회 상임부회장 英濟 종원의 집예(執禮)로 진행된 묘제(墓祭)는 엄숙했지만 인파로 절을 할 공간이 없어 더러는 절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있기도 했다.

생전 처음 서울서 왔다는 모종원은 『유명한 生六臣의 묘역에 큰 비석등 석물(石物)이 화려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질문해 『응암(매)에 무거운 석물을 얹으면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라고 설명해 주기도 했다.

묘사가 끝난 다음 일행이 고개 넘어 응암재 낙성식 현장에 한꺼번에 몰려들었지만 한조유적보존회 회원과 伽倻邑청년회, 부인회, 法守面청년회 회원등 자원봉사자들의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인 주선으로 수용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각 지방 일가들이 보내온 화환에 둘러싸인 5백여평의 낙성식장도 묘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一家들까지 2천여명이 운집(雲集)해 혼잡했다.

낙성식이 엄숙히 진행되는 동안 원근(遠近)에서 오신 집안끼리 화단 등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선조의 얼에 대한 화제로 꽃을 피웠고 또 시도기(時到記) 접수대 부근에서는 이날 선물(책자와 차판)을 참석하지 못한 一家몫까지 달라고 주선하는 사람간에 가벼운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풍경은 漁溪할아버지의 한 핏줄을 이어받은 후손들끼리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모두가 흐뭇하기만 했다.

모두들 응암재 웅장함에 감탄을 연발했다.

신년하례회

부산靑年會

咸安趙氏 부산靑年會(회장·趙鏞範) 신년회가 1월 9일 하오 부산시 범일동 국제호텔 대회의실에서 회원가족, 전역회원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이날 회장은 올해 회원 배가(倍加)운동과 여름철 회원과 가족2세들과 함께 응암재서 하계연수실시를 다짐했다.

식이 끝난 다음 회원들은 가족과 어울려 즐거운 노래자랑등을 펼쳤다.

地上11층 빌딩 건립

釜一產業(株) 趙成濟종원

본회 이사겸 전 함안조씨 부산청년회 회장 趙成濟 종원(釜一產業(株) 대표이사)이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경부고속도로 입구 부근에 지하3층 지상11층의 빌딩을 건립, 지난달 1월 20일 신사옥 입주식을 가졌다.

94년 6월 착공하여 지난해 11월 27일 완공된 이 건물은 대지 2백40평에 연건평 1천9백28평으로 공법은 철골콘크리트로 완공했다. 이날 釜一產業(株)、(주)成宙 등 7개 계열 회사가 입주하였다. 1·2층은 은행에, 그리고 보험회사 금정케이블방송국을 유치, 입주시켰다. 또 자동차 1백대가 주차할 수 있는 빌딩도 함께 준공되었다. 成濟 종원은 馬山 출신으로 부친 故 趙鏞卓옹이 생전 묘사등 문중행사에 빠지지 않으셨던 숭조정신을 이어 받아 부산화수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성의를 다했을 뿐 아니라 이번 鷹巖齋중건공사에도 5백만원의 헌성금을 내어 놓았다.

謹賀新年
趙魯濟 (參議公派)
LG트레이딩(국내부문) 대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84-18번지
TEL. (051)322-0800
FAX. (051)322-0802
크로바무역(수출부문) 대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29-23번지
TEL. (051)558-0342
FAX. (051)558-0343
◀ 취급품목 ▶
합성수지 제품일체(쇼파, 가방, 신발, 자동차 및 산업용 비닐레자류 원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사)한국4-H연맹 경상남도지부장

謹賀新年
染料·螢光·助劑·化工
保成洋行
趙錆濟 (執義公派)
和永產業(株)
三原產業(株)
世一化學(株)
大韓油化(株)
總代理店
釜山廣域市 釜山鎭區 釜田2洞 155-6
電話 (051)802-5001, 7756
CP (011)596-2968
自宅 (051)555-7844

先祖의 言行錄

琴隱典書公篇 ②

公이 말하길 『옛날 고려군왕의 경연에서도 거문고를 타지 않겠다고 말씀올렸다(고려왕께 간월 존전에 편안이 몸을 펴고 앉아 거문고를 탐이 어찌 외람되지 않으리까? 또한 조복을 입고 악공들처럼 음율을 연주함이 어찌 천하지 않으리까? 이것이 왕명을 좇지 못하는 두가지 까닭이옵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만일 왕의 청을 듣는다면 다른 날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선왕을 알현할 것인가?』라 했다。

왕이 말했다。 『그전에 송악에서는 자네가 거문고를 타고、내가 장구치고、鄭夢周는 휘파람을 불고、李색은 노래하고、黃喜는 춤추었거늘 금일에는 어찌 한 곡을 그토록 아끼는고?』

공이 대답하기를 『그때는 친구로서 각각 장기를 뽐내 한가히 즐겼던 것이다。 금일 한양은 송악이 아니요、낙성연은 한가히 즐기는 자리가 아니다。 李侍中은 왕이라 칭하고 있고、포은은 피살되어 구천에서 울분을 안고 있으며、주상은 君으로 강등되어 원한을 품고 간성에 계시다。 이 늙은이 비록 불충하다 하나 세세로 王氏의 녹을 먹어 장군편의 典書가 아니다。 어찌 李王과 같이 즐길 수 있겠는가?』하니 왕의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가득했다。

黃喜와 權近이 머리 숙여 간했다。

『趙典書의 절개를 굽힐 수 없사옵니다。 공경히 돌려보냄만 같지 못하겠습니다。』

왕은 이를 허락했다。

이 해에 太祖가 恭讓君을 죽였다。 공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지내고 삼년상을 입으셨다。(朝鮮史記)

正宗 원년(기유년)에 太祖의 어용을 다시 그리려고 백관을 모아놓고 누구의 그림이 가장 빼어나냐고 물으니 모두 『琴隱 趙典書의 그림』이라 했다。 왕은 『파인도 그의 그림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순순히 오겠는가?』라고 하면서도 선생의 예로써 친서를 써 내시 한사람을 咸安까지 보내 縣監과 함께 가서 모셔 오도록 했다。

내시와 현감이 대에 도착해 폐물과 서찰을 드리니 공이 지난 일을 생각하고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친서는 받되 폐물은 물렸다。 내시가 本縣(함안)에서 수십일을 머물면서 왕의 편지가 거듭와 만부득이 창덕궁으로 가셨다。

왕이 혼연히 영접해 삼일동안 우대한 후 말했다。 『지금 상왕의 어진을 다시 모시려 여러번 그렸으나 수법이 모호해 칭찬할 수 없다。 先生은 부왕의 친구라 바라건대 붓을 들어 진상(眞相)을 그려주면 종묘의 보배로 삼을 것이요、선생의 공덕을 기릴까 하노라。』 〈次號에 계속〉

〈정리=釜山日報記者 趙瑄〉

96년 現在 12개代 살하

行列=植、性、奎、鏞、濟、來、顯、在、欽、洙、東、煥

현재 우리 咸安趙氏가 몇대(代)가 생존(生存)하고 있는지 자못 흥미 꺼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살고 있는 대수는 25대 식자(植)、26대 성자(性)、27대 규자(奎)、28대 용자(鏞)、29대 제자(濟・河)、30대 래자(來)、31대 현자(顯)、32대 재자(在)、33대 흠자(欽・鎬)、34대 수자(洙)、35대 동자(東)、36대 환자(煥)까지 무려 열두대(代)로 나타나고 있다。

한대(代)가 30년으로 환산하면 3백60년의 차이가 더불어 살고 있는 셈이 된다。

항렬(行列)이 높은 집안은 시조로부터 막내아들이 또 막내아들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며 항렬이 낮은 집안은 종손(宗孫) 집안이라 할 수 있다。(종손 집안이라도 대가 끊겨 양자(養子)로 대를 잇는 경우、그렇게 낮지는 않다)

우리 족보(族譜)에 의하면 항렬이 높은 집안은 어계 선조를 기점으로 큰아드님 진산공(珍山公) 諱 鋼字 虎字 설하 일곱째 손자이신 내헌공(耐軒公) 諱 灝字 할아버지의 증손(曾孫) 열세분 가운데 아홉번째 동지공(同知公) 諱 勉字 道字 할아버지와 손자인 두암공(斗巖公) 諱 埰字 할아버지 후손들로 꼽을 수 있다。 아직 25대 식자(植)가 固城・咸安・馬山・서울 등지에서 몇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6대 성자(性)는 咸安郡守를 비롯하여 부산 함안등지에서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항렬이 낮은 집안은 어계선조 둘째 아드님 좌윤공(左尹公) 諱 金字 虎字 할아버지 큰손자 남계공(南溪公) 諱 壽字 萬字 할아버지의 종손 대소헌공(大笑軒公) 諱 宗字 道字 할아버지의 후손으로、종손 35대 東潤의 아들 36대 承煥(8)군으로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 이렇듯 열두대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렇게 代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姓氏는 항렬이 뚜렷한 우리 咸趙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大笑軒선조 표석 除幕式

大笑軒 선조 묘역 정화사업의 일환인 「忠毅公 大笑軒趙宗道선생世庄地입구」 표석(사진)제막식이 지난해 11월 28일 山淸郡 丹城面 召南里 입구도로변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표석은 釜山충의공사적연구회가 3백만원을 부담하여 세운 것이다。 글은 후손 英濟 종원이 썼다。

寧越청령포에 세워진
漁溪碑苑 새로 단장

1988년 5월 23일 漁溪碑苑 趙旅先生史蹟碑 제막 이후 몰지각한 사람들의 소행으로 虎齒破損(호랑이석상 이빨파손)、石柱울타리 파손 등 속상한 일들이 있었으나 宗事運營會의 지원을 받아 완전 복원하였다。 咸趙후예들의 존엄성을 더욱 고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다。 따라서 조경도 새롭게 단장、公苑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시민과 관광객 휴식처로 각광을 받도록 관리에 힘쓰겠다。 일가들의 많은 참배를 바란다。

〈寧越 趙奉顯〉

싱가포르서 『孝道法』추진

부모부양 거부땐 최고징역刑

趙漢奎 〈三聖中學校 校長〉

작금의 이 땅에 존속살해라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자식길을 떠나 멀리 홀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늘어나 윤리도덕성 회복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 싱가포르에서는 늙고 가난한 부모를 부양하기 거부하는 자식들은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부모부양법」 제정안을 두고 심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월 얼마씩의 생활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吳作棟 싱가포르 총리는 對국민연설을 통해 『가족의 전통적 가치와 인륜이 서방처럼 무너진다면 싱가포르 사회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식들을 버릇없이 기르는 것이 오도된 열정으로 이들을 비정상으로 몰아넣고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吳총리는 이어 『미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면서 지나치게 격의없이 부모를 대하고 있다。 아시아의 아이들이 부모와 노인들에게 전통적인 공손과 존경의 자세를 저해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들마저 아무런 생각없이 빠져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吳총리는 그 본보기로 작년 9월 싱가포르 방문중 외국 젊은이들과 어울려 자동차를 부수다 체포되어 4대의 곤장과 함께 83일간의 구류형을 산 미국청년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 술에 취해 자신의 아버지를 구타한 사건을 지적했다。

효도는 법 이전에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의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진실된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효도는 공경이고 사랑이며 우애이고 믿음이며 친절이고 성실이자 충성인 것이다。 효도는 부모에 사랑과 공경을、가정에 화목을、형제에 우애를、친구에 우정과 신의를、직장에 성실과 명랑을、사회에 믿음과 안정을、국가에는 충성과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부모들은 자신이 먼저 온효자가 되고서 자식이 반효자가 되어 주길 바라며 발전된 세계 속의 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

趙益濟종원의 崇祖精神에 감탄

“기와 한조각도 先祖의 숨결담긴 귀중한 유산”

鷹巖齋 旧建物 5백만원 들여 보관

2백16년전 선조님들께서 수년 걸려 세우신 鷹巖齋 구건물이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1994년 10월 9일 철거되었다。

몇일 후 西隆그룹 益濟 회장이 철거물을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종사운영회에 5백만원을 지불하고 운반해 갔다。

철거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의아한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깊은 철학이 숨어 있었던 것을 몰랐다가 최근에서야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益濟 종원은 철거가 끝난 다음 난트럭을 동원、깨어진 기와 몇조각까지 경남 梁山으로 운반해갔다。

문짝등 모두 梁山으로 운반
주점등에 장식물 사용 우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일정한 곳에 원형 그대로 복원할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었다。 그러기에는 재목들이 너무 낡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 보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숨은 뜻을 알게 된 것이다。

益濟 종원은 선조의 체취가 스민 기둥、나무토막、문짝들이 유흥업소로 흘러 들어가 인테리어 자재로 둔갑、룸싸롱・대형음식점 등의 벽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이렇게 깊은 뜻이 숨겨진 사실을 알게된 많은 宗員들은 숭조사상이 철저한 益濟 종원의 행동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謹賀新年

農協中央會海雲臺支店
支店長 趙公濟 (監察公派)
TEL. 743－1671

朝興銀行蓮山洞支店
支店長 趙晶來 (大笑軒公派)
TEL. 867－4494

서울銀行釜山中央支店
支店長 趙義平 (顯·大笑軒公派)
TEL. 246－6711

韓國住宅銀行蓮山洞支店
支店長 趙顯宅 (參議公派)
TEL. 863－4121

咸安趙氏 13忠 (2)

忠毅公 趙宗道 선생의 學問的 世界와 義兵活動 (上)

先祖의 얼 ⑥

趙京濟〈文化部長〉

I。 略傳

1537(중종32)～1597(선조30) 宣祖때 文人이며 義兵將으로 殉國義士이다。諱 宗道、字 伯由、自號 大笑軒、謚號 忠毅(謚法危身奉仕曰忠 剛而能斷曰毅) 贈 吏曹參判、褒贈旌閭雙節(忠烈 續三綱錄載錄)復戶

官職: 安奇 察訪、司導寺直長、尙書院直長、通禮院引儀、長隷院司評、陽知縣監、聞慶縣監、金溝縣令、掌樂院僉正(不任)、丹城縣監、安州牧使(不任)、清風府使(不任)、咸陽郡守 等歷任

•矗石樓中三壯士、咸趙十三忠(十三忠、中血食千秋의 恩典은 大笑軒뿐임)

註: 1773년(영조49)에 촉석루중삼장사에 대해 호남유생들이 異論을 제기하여 약 200년간 끌어왔으나 1960년에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이 국사편찬 위원회의 史的考證에 의하여 金鶴峰誠一、趙大笑軒 宗道、李松岩 魯、三人을 指稱함을 確認함

•湖南儒生들이 主張하는 三壯士: 金千鎰、崔慶會、黃進(또는 高從厚)

II。 事蹟

德岩書院(咸安遺墟碑)、黃岩書院(安義復院計劃)、慶林書院(晋州칠원)、黃石山城殉國事蹟碑、黃石山城戰蹟史蹟(문공부사적제322호 성곽복원중)、雙節閣(院北)、神道碑(召南)、矗石樓三壯士記實碑(晋州촉석루경내)、大笑軒家廟(召南宗家)、大笑軒世庄(宗家 지방문화재)、墳墓(召南先塋)、壬辰倭亂時義兵倡義通文(晋州大亞高、大笑軒事蹟集、原文收錄)、矗石樓中三壯士詩 幷序 揭板(晋州촉석루)

III。 享祀(血食千秋)

•不遷之位(忌祭祀: 陰八月十八日子時) 宗家世庄

•黃石山城 殉國先烈追慕祭(陰八月十八日午前) 咸陽郡追慕委員會(主催)

IV。 家系와 學統

先生은 高麗開國功臣 元尹公 諱 鼎을 遺祖로 麗朝에는 歷代로 官이 끊이지 않았으며 11代祖 政堂文學(從二品) 諱 烈은 李太祖의 高祖와 元宗朝에서 같이 벼슬하였다。麗末의 趙安卿(孤竹齊)、趙承肅(德谷) 兩先生은 杜門洞 72賢이고、7代祖 諱 悅은 벼슬이 工曹典書에 이르렀으나、杜門洞 72賢과 교분을 갖고 李태조의 易姓革命에 반대하여 咸安에 은둔、五代祖 漁溪先生은 朱子性理의 의리명분에 입각하여 世祖찬탈의 勳戚勢力을 배척하였으며、後孫들도 義를 앞세우는 學統의 脈을 이어 받았다。특히 大笑軒先生은 曺南冥의 생질인 李俊民(이조판서)이 장인이 되고 盧玉溪 先生(병조·이조판서)은 大笑軒의 妹兄의 父親이다。또한 大笑軒은 曺南冥、盧玉溪 門下에서 性理學의 義의 實踐的 學問을 깊이 통단하였다。

V。 修學 및 學問的 世界

先生은 天姿가 英偉하고 擧止가 非凡하며 5·6才에 「人行大路 犬吠門前」이란 글귀를 지어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하고、8才에 蝸牛詩(달팽이시)는 天才적 재능을 보였다。宣祖九年(1576) 安奇察訪에 있을때 宣慰使로 온日本使臣僧玄蘇送別時에 大笑軒의 和答詩를 보고 氣가 죽어 벽에 걸어 再拜하고 읽었으니 先生의 學問의 程度를 짐작케 한다。또한 盧玉溪集에서 발견된 壽宴和答歌는 全北大 崔勝範敎授가 學界에 발표하면서 해설한 것을 보면 자연(日月)을 동물(까마귀·토끼)에 은유하여 자연을 휘어잡는 호방한 詩風으로 先生의 대범한 성격과 學問의 폭넓은 世界를 대변해 준다고 하였다。詩내용(紙面관계로 생략)

先生은 學問형성의 기초는 鄕斗、申弘國 양 先生의 가르침으로 晋州 地方試選拔(15才)、地方鄕試合格(21才)、生員會試二等(22才)、慶尙左道 東堂選拔試合格(42才) 等을 거치고、보다 깊은 性理學의 깨달음은 前述한 바 曺南冥、盧玉溪 두 先生을 비롯한 南冥門人과의 交流를 通하여 깊이 體得하였다。

咸趙며느리의 龜鑑

趙鏞道종원 맏며느리 李点順여사

시아버지 극진봉양 代山노인회서 표창

함안조씨 代山화수회는 생전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이웃노인들을 친부모처럼 공양하는등 남달리 경로사상이 투철한 咸安郡 代山面 九惠里 趙碩濟 종원의 부인 李点順(40)여사가 최근 代山面 노인회로부터 표창을 받아 이 사실이 함안조씨 며느리들의 귀감이 될것으로 확신한다고 전제、宗會報에 소개해 달라고 알려왔다。

李여사는 일찍 趙鏞道 종원의 맏며느리로 시집와 홀로된 시아버지의 노환을 극진히 간호하고 매년 생일때와 정초에 이웃 노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주연을 베풀어 어른들을 즐겁게 했다。또 매일 같이 경로당 청소를 도맡아 10여년을 한결같이 내집처럼 가꾸어 왔다。또 이웃 대소사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도 하고 있다。

代山노인회는 이러한 선행에 대해 시아버지가 별세한 다음해 95년 정기총회 석상에서 표창한 것이다。

李여사는 표창받을 일이 아니라고 극구 사양했지만 노인들의 간곡한 설득에 못이겨 수상했다는 것이다。

에베레스트 南西壁정복

趙炯奎종원이 隊長인 경남산악회팀

지난해 10월 14일 하오 2시 한국산악회의 숙원이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 남서벽(南西壁) 등정에 우리 咸安趙氏 炯奎 종원(47·咸安郡伽倻邑)이 대장으로 구성된 산악회 경남연맹팀이 정복하여 한국산악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을 세웠다。

이 코스는 세계 3대 악벽(惡壁)중의 하나로 너무 험난해 우리나라 산악팀이 일곱번째 도전끝에 올린 개가로서 지금까지 남서벽을 정복한 국가는 영국、소련、체코、일본에 이어 다섯번째 있는 일이다。

세계 최고봉의 남서벽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루트의 하나로、악명이 높은 것은 해발 6·500M에서 8·848M의 정상까지 2·340여M가 평균 경사가 70도로 가파르기 때문이다。게다가 지대는 눈과 얼음 바위가 온통 뒤엉켜 있으며 예고없이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돌풍은 가히 살인적이라 한다。또 텐트 칠 공간 마저 없는 이곳에 우리 咸趙 炯奎 종원(사진·同知公派)이 이끈 팀이 정복한 것이다。

炯奎 종원은 咸安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했다。일찍 釜山大 약대에 진학하여 산악부를 조직、우리나라 명산은 모두 정복하였고 졸업후 부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한의사로 계시던 조부의 『고향사람들을 위해 고향에서 봉사하라』는 유언에 따라 咸安으로 낙향하여 伽倻邑에서 중앙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炯奎 종원은 숭조정신도 남달라 현족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하는 열성을 갖고 있고 함안 淸風會 회원이기도 하다。

鷹巖齋건립 獻誠金 감사합니다

▲趙來元(執義公派·서울) 陸軍憲兵監 80만원
▲趙性勳(斗巖公派·郡北) 大韓通運 所長 50만원
▲趙性洛(斗巖公派·咸安) 伽倻 大韓通運 所長 50만원
▲趙성섭(釜山) 50만원
▲趙正奎(同知公派·釜山) 50만원
▲趙平來(執義公派·郡北) 農業 50만원
▲趙來信(咸鏡公派·서울) 함안개발산업사 사장 50만원
▲趙 顯(咸鏡公派·서울) 大德研究所 研究員 50만원
▲趙在騏(大笑軒公派·서울) 前會社重役 50만원
▲節度公派麗水地區宗親會 50만원
▲趙榮奎(斗巖公派·釜山) 釜山鎭稅務署 法人稅課長 50만원
▲趙鏞範(斗巖公派·代山) 韓進沐浴湯 30만원
▲趙暇奭(澗松堂公派·濟州) 한라전문대학 교수 30만원
▲趙孝濟(澗松堂公派·서울) 國民銀行 근무 30만원
▲趙恩得(澗松堂公派·서울) 第一銀行 근무 30만원
▲趙顯奎(大笑軒公派·釜山) 德文女高 校長 30만원
▲趙永奎(都事公派·郡北) 農業 20만원
▲趙百奎(都事公派·郡北) 農業 20만원
▲趙鏞武(都事公派·郡北) 農業 20만원
▲趙省濟(大笑軒公派·法守) 農業 20만원
▲趙君濟(都事公派·郡北) 農業 20만원
▲趙世濟(大笑軒公派·郡北) 農業 20만원
▲趙穆來(執義公派·山仁) 咸安花樹會長 20만원
▲趙貞來(參判公派·法守) 農業 20만원

宗員動靜

▲趙錫來종원(효성그룹 회장)=지난해 11월 11일 표교인 美일리노이大 로버트 프리처 포상심사위원장으로부터 「올해의 동문상」을 수상했다。

▲趙顯祜종원=95년 11월 2일 건설교통부 총무과장으로

▲趙元濟종원=11월 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趙鏞哲종원=11월 15일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증식과장으로

▲趙特來종원=11월 18일 청구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부사장취임

▲趙瑛來종원=12월 1일 대우무역 이사부장으로 승진

▲趙起濟종원=12월 10일 삼성중공업(주) 상무이사로 승진

▲趙在鴻종원=12월 10일 삼성생명(주) 중역으로

▲趙福來종원=12월 10일 東萊칸트리클럽(주) 상무이사로 승진

▲趙慶來종원=12월 13일 LG카드(주) 상무이사로 승진

▲趙聖來종원=12월 13일 LG EDS(주) 이사로 승진

▲趙祥來종원=12월 13일 LG할부금융(주) 이사로 승진

▲趙碩濟종원=12월 13일 LG그룹 회장실 이사로 승진

▲趙憲濟종원=12월 14일 (주)油公 상무이사로 승진

▲趙在仁종원=12월 17일 大林자동차(주) 상무이사로 승진

▲趙廷來종원=12월 19일 경찰청 감사과장을 자리 옮김

▲趙在哲종원=12월 22일 世亞그룹 제강대표이사로 승진

▲趙鏞柱종원=12월 22일 世亞엔지니어링(주) 상무이사로 승진

▲趙顯明종원=12월 23일 감사원 1국3과 감사관으로 자리 옮김

▲趙文顯종원=12월 29일 현대그룹 仁川製鐵 전무이사로 승진

▲趙奎鎬종원=12월 29일 수산업협동조합 서울 청량리지점장으로 승진

▲趙午濟종원=12월 30일 東南銀行 청계천8가지점 개설준비위원장으로

▲趙在榮종원=12월 30일 自民聯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으로

▲趙顯榮종원=96년 1월 4일 現代해상보험(주) 서울강북지역본부 부장으로

▲趙鏞善종원=1월 4일 (株)대교 상무이사로 승진

▲趙顯宗종원=1월 5일 新韓生命(株) 연수3팀장으로 영전

▲趙顯信종원=1월 6일 한국투자신탁(주)大邱범어동지점 부지점장으로

▲趙顯祜종원=1월 6일 仁濟大學校 외국어교육연구원장으로 영전

▲趙萬濟종원=1월 7일 경상남도 도의회사무처(사무관)으로 영전

▲趙顯武종원=1월 7일 국제생명(주) 富川영업국장으로

▲趙德濟종원=1월 8일 동서대학교 응용공학부 학부장으로 영전

▲趙顯翼종원=1월 9일 산업은행 東京지점 차장으로

▲趙成濟종원=1월 10일 수산업협동조합 덕정사업소장으로 승진

▲趙顯國종원=1월 11일 동양증권 법인영업부 차장으로 승진

근하신년

咸安趙氏晋州花樹會
會長 趙得來 (大笑軒公派)
TEL. 41－6262 43－6860
總務 趙忠(顯) (大笑軒公派)
TEL. 745－0243

咸安趙氏昌原花樹會
會長 趙鏞憲 (斗巖公派)
TEL. 62－6767
總務 趙鏞海 (節度公派)
TEL. 81－7710

咸安趙氏鎭海花樹會
會長 趙快濟 (參議公派)
TEL. 546－4194
總務 趙鶴來 (德谷公派)

咸安趙氏金海花樹會
會長 趙鏞振 (同知公派)
TEL. 31－6148
總務 趙鏞寅 (斗巖公派)
TEL. 34－8060